

# 범죄 제압하는 사명감 속 안전은 어디에

##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 속 무도실무관의 노동환경

글 편집실

<무도실무관>은 치킨 배달을 하며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무술 유단자 이정도(김우빈)가 우연한 계기로 범피자에게 공격받은 무도실무관을 구한 뒤 그를 대행해 보호관찰관 김선민(김성균)과 함께 전자감독 대상자를 감시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이야기다. 영화 속에서 알 수 있듯 무도실무관은 대중에게 생소한 직업군에 속하지만, 감시 대상자의 재범을 막아 시민을 보호하는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숨은 영웅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영화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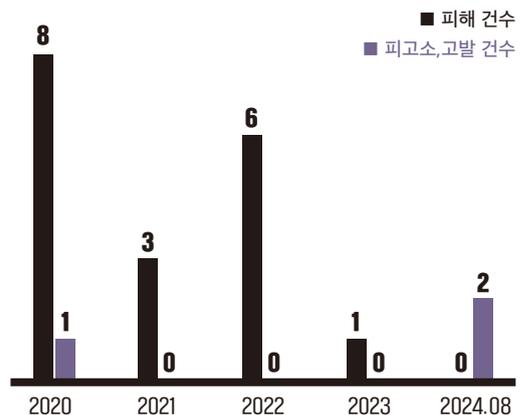


### 사선에서 범죄예방에 앞장서는 노동자

무도실무관은 법무부 소속으로 근무하며 보호관찰관을 보조하는 무기계약 공무원 노동자이다. 2013년, 전자감독 대상자의 체계적 관리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유단자 30명을 선발하면서 생겨났다. 전자감독 보호관찰관과 2인 1조로 활동하며,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무력을 사용해 제압하는 역할을 맡는다. 살인,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전자감독 대상자는 재범 위험이 크기에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해 24시간 위치와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중대한 임무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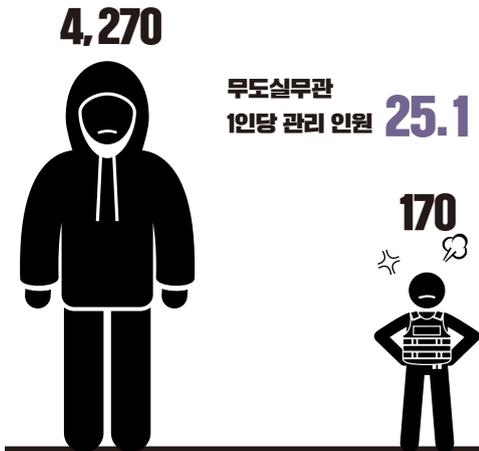
법무부에 의하면 올해 8월 기준, 보호관찰관 381명과 무도실무관 170명이 약 4,270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무도실무관 1인당 약 25.1명을

무도실무관 폭행 피해 현황 및 피고소 고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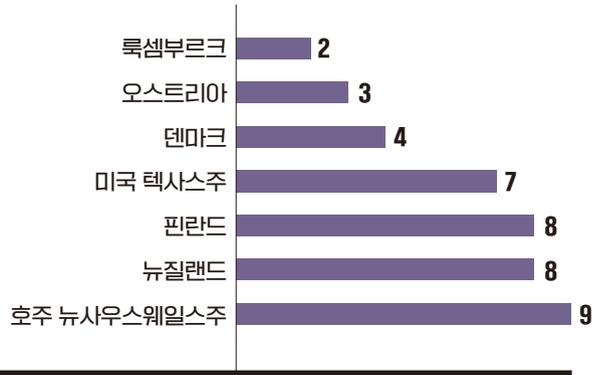
자료 : 법무부, 단위 : 건

전자감독 대상자 정원 현황



자료 : 법무부(2024년 8월 기준), 단위 : 명

해외 전자감독 전담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대상자 현황



자료 : 주진우 국민의 힘 의원실, 법무부(2022년 기준), 단위 : 명

담당하는 셈이다. 무도실무관은 3교대 근무 형태로,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해 약 280만 원(세전)에 그친다. 높은 업무에 비해 처우는 매우 낮으며, 경력은 임금에 반영되지 않으며, 게다가 10년을 일해도 급여는 제자리걸음이다. 또한 주로 강력 범죄 이력이 있는 전과자들과 대면하는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위험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반면에 징계는 보호관찰관과 똑같은 처우를 받아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호·제압 장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를 체포하는 과정은 실질적 사법행위 집행이지만, 법적 권한이 없어 고소당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다양한 직업병으로 번져

16년 사이 전자감독 대상자가 28배 증가하며 재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더 많은 감시·추적·관찰이 필요함에도 무도실무관은 인력 부족으로 업무 과중이 높아지고 있다. 무도실무관은 상시 출동 대기, 경보 발생 시 현장 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옥설과

폭행에 대응하고 위급 상황에서는 대상자를 제압하는 역할까지 맡는다. 또한 전자감독 대상자는 물론 대상자의 가족과도 교류하며 관리해야 하는 등 감정노동자의 역할도 지닌다.

이러한 높은 강도의 업무는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지속적인 긴장은 번아웃 증후군으로 이어져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또 전자감독 대상자의 난동을 제압하고 보호관찰관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동작과 과도한 힘 사용은 신체적 손상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한다. 3일마다 주야간 교대 근무는 생체리듬 부조화와 수면장애 등을 유발하며 건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사명감과 보람만으로 견디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무도실무관의 처우와 복지 개선이 절박하며, 그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와 신체 보호를 위한 환경 개선도 시급하다. 정기적인 정신건강 상담과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도입, 보호·제압 장비의 착용 의무화 등은 필수 불가결 요소이다. 인력확충을 비롯해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다. 🐾